

목포대·순천대 통합... 정부 약속 '국립 의대 설립' 가시화

두 대학 총장 통합 합의... 동·서부권 경쟁 갈등 끊고 지역 발전 첫걸음
초일류 거점대 '초석'... 독심있게 중재 이끈 김영록 지사 리더십 주목

국립목포대와 순천대가 대학 통합 및 통합 의대 설립에 합의했다. 30년 넘는 숙원사업인 국립 의대 유치에 통해 끊이지 않았던 '동·서부권 경쟁·갈등' 구도를 끊어내고 지역 발전을 위한 대승적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련기사 3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립 의대 설립 추진' 발언에도, 추진 과정을 놓고 계속되어왔던 대학·지역사회의 반발, 지역 정치권의 소지역주의와 편가르기식 정치를 이겨내고 인내하면서 '통합 의대'를 이끌어 온 김영록 전남지사의 역할도 재차 주목받고 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목포대와 순천대 총장은 지난 15일 밤 '대학 통합'과 '통합 의과대학 설립'에 합의했다. 두 대학은 오는 2026년 3월 통합대학 출범을 목표로 올해 12월 말까지 대학통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양 대학은 또 오는 2026학년도 통합의대 정원 배정을 위해 통합대학 명의로 예비인증평가를 신청하는 등 전남도와 양 대학이 함께하기로 했다.

양측은 대학 통합 과정과 의과대학의 설치 및 운영 등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동등한 조건을 바탕으로 대학 통합과 통합 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전남 동·서부권 지역민 모두가 의료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두기로 했다.

두 대학의 통합은 도민의 의료복지 향상 뿐 아니라 정부의 '1도 1국립대' 방향에 대응하고 글로벌 30대 대학 간의 협력과 캠퍼스별 특성화를 통해 '초일류 거점대학'으로 발돋움하는 데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의 적극적 중재는 양 대학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도의 전폭적 지원과 헌신적 노력 속에서 이뤄졌다'고 명시했을 정

도로 역할을 했다. 전남도는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통합대학 출범을 신속히 지원하고 곧바로 정부에 의과대학 정원 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대 신설이 이루어질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양 지역에 대학병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송하철 목포대 총장과 이병은 순천대 총장은 "이번 합의는 전남 동·서부 간 오랜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180만 도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간절한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두 총장은 "이제 정부가 나서서 의과대학 신설 약속을 이행할 때"라며, "전남 도민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도 대학 통합을 환영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목포대와 순천대의 대학통합 합의와 통합의대 설립 추진 발표와 관련, 환영문을 내고 "목포대와 순천대가 역사적이고 대승적인 '대학 통합'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온 도민과 함께 뜨겁게 환영한다"면서 "두 대학이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수도권 대학에 결코 뒤지지 않는 글로벌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전국 최초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양 대학 통합 합의는 30년 넘게 이어진 도민의 국립의대 설립 염원을 확실히 실현시켜 줄 것"이라며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해 '2026학년도 통합의대 개교'를 위한 정원을 반드시 확보하고 동·서부권 병원 설립에 필요한 재정 등 의료인프라 구축과 의료복지 확충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조현상 APEC 기업인자문위 의장 본격 활동 돌입



조현상(왼쪽) HS효성 부회장이 지난 16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 만찬장에서 헤드 테이블에 앉아 윤석열 대통령, 디나 볼루아르테(오른쪽) 페루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ABAC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업인의 의견을 APEC 논의에 반영하기 위해 1995년에 설립된 APEC 공식 민간 자문기구다. 조 부회장은 최근 ABAC 의장으로 만장일치 선임됐다. 조 부회장은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에서 열리는 'ABAC 위원-APEC 정상과의 대화'에서 의장을 맡는다. <H효성 제공>

이 작품은 2024 지역사회 MZ세대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입니다.



한미일 협력사무국 설치키로 윤-시진핑, '한중 FTA' 협상

APEC 정상회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5일(현지시간) 안보를 포함한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일 협력 사무국'을 설립하기로 했다. 또 윤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 정세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속화 등 양국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윤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이시바 총리는 또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강력히 규탄했다.

한미일 정상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에서 별도 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일 정상은 성명에서 "신설되는 사무국은 인도-태평양을 번영하고 연결되며, 회복력 있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목표와 행동들을 더욱 일치시키도록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한 규탄과 대응책에 대한 합의도 담겼다.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 전쟁으로 규정,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한미일 정상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과 회피,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한미일 협력은 3국 정부의 각 분야에서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됐다"며 "한미일 관계가 향후 수년

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평형의 기제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중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과 러시아-북한의 군사 협력 등에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고, 시 주석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평화적 문제 해결 원칙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과 함께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지속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한 군사 도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거론한 뒤 "한반도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으로서 중국이 건설적으로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세계가 글로벌 복합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한중 간에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양국이 힘을 모아 안보·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 역시 역내 정세의 완화를 희망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며 "오로지 당사자들이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APEC 정상회의의 두 번째인 세션 정상 간 친목 행사 '리트리트'에 참석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역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APEC 미래변영기금'을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위기에 취약한 젊은 미래세대를 돌보는 일에 집중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 기금은 청년층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고, 역내 청년들의 교류를 촉진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함께 만드는 다채로운 대한민국



한곳에 모이면 어둠 고르게 나누면 다채로움

대한민국은 현재 수도권 밀집 현상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부딪혔습니다. 지방 자치가 발전하고 지방 연대가 이뤄져야 다채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쉬운 수능... 주요대 합격선 1~2점 상승 전망 ▶6면

김여울 기자, KIA 오키와 캠핑을 가다 ▶18면

세계 미술관 기행 - 폐기 구겐하임 미술관 ▶22면